

정답	가형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②	③	①	②	④	②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①	④	④	②	②	③	④

해설

- (생활영어) 난이도 - 중
빈칸 앞 문장에서 여섯시까지지는 도착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빈칸 뒤에 "지금 당장 떠나야 해" 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시간이 촉박한 것을 알 수 있고, 보기 ①번의 "cut it close=(시간)을 절약하다"의 뜻이므로 ①이 적절하다.
- (독해) 빈칸완성 - 난이도 하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손실의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언급된 한 가지 방법은 a portfolio approach(포트폴리오 접근법)이다. 빈칸 문장은 "당신이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사용할 때, 당신은 ___ 하다." 이므로 빈칸엔 "손실을 피할 수 있다"라는 문맥이 와야 한다.
보기 ①의 "개인적 손실을 더 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가 적절하다.
- (독해) 제목 - 난이도 중하
글의 후반 부, but 뒤에서 주제문을 언급하고 있다. "what we do have control of ~ the present(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현재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다)", 그 뒤 문장 "The present is all we have(현재는 우리가 가진 전부이다)", 마지막 문장에서도 "the more we are ~ participation(우리가 더 현재에 둘러싸여 있을수록 더 우리자신의 존재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이 모든 부분을 종합했을 때 제목은 ② Reflect on the Time That Surrounds you Now(현재의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에 대해 생각하라)가 적절하다.
- (어법) 난이도 - 하
③ result in(~을 초래하다)는 자동사 이므로 수동태가 될 수 없다.
① 주어어 it ~ 진주어 to imagine 으로 맞게 쓰였다
② Take A for granted : "A를 당연하게 여긴다." 라는 표현이다.
④ 분사구문의 ing를 쓴 것, 앞에 주어는 산림벌채이고 관계가 능동이므로 affecting가 맞게 쓰였다.
- (어휘) 난이도 - 하
indigenous(토착의, 원산지의, 고유의) = ① native(원주민의, 토박이의, 고유의)
② ravenous(엄청난, 굶주린)
③ impoverished(가난한, 빈곤한)
④ itinerant(방랑하는, 떠돌아다니는)
- (논리형 어휘) - 중
빈칸 다음 문장에서 "누구나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음악가가 되기 위해선 재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므로 빈칸에는 "음악을 듣는 것이 락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의 문맥이 와야한다. 보기 ② "a far cry from(~와는 거리가 먼)"이 적절하다.
① on a par with(~와 동등한, 같은)
③ contingent upon(~의 여하에 달린, ~에 의존하는)
④ a prelude to(~의 서막)
- (글의 흐름) 난이도 - 하
글의 앞부분에서 주제문이 언급되고 있다 생물학자들이 물속에서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식물을 개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들에선 이 식물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데 보기 ④의 "This is dreadful news(이것은 끔찍한 소식이다)"는 글의 흐름과 정 반대된다.
- (생활영어) 난이도 - 중
빈칸 앞 문장에서 "넌 운전해 본적 있니?"라고 묻고 있다 빈칸문장에

- 서 A는 "Can't wait to(~하고 싶어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문맥에 근거 했을 때 운전하고 싶다는 말이 와야한다. 보기 ②의 get my feet wet(~을 이제 막 시작하다)의 뜻이므로 가장 적절하다.
- (내용일치) 난이도 - 중상
글의 소재는 상어의 비늘에 관한 것 이고 3번째 줄부터 "A shark can move ~ reduce the water's drag" 부분에서 "상어의 비늘이 물의 이끌림을 줄여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 문장에서 Lang이라는 엔지니어가 등장에 이를 비행에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Lang feels that ~" Lang은 상어의 비늘이 비행기의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으므로 보기 ② "Lang revealed that the scales of a mako shark are utilized to lessen drag in water(랭은 마코 상어의 비늘이 물에서의 이끌림을 줄이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혀냈다)가 적절하다."
 - (어법) 난이도 - 하
보기 ③번에서 원래는 pay attention to 문장인데 attention을 앞으로 빼고 pay to가 뒤에서 attention을 꾸미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pay attention to 가 "~에 집중하다"이고 attention 과 pay의 관계를 봤을 때 attention(집중) ~에 되어져야 하는 수동의 느낌의 이므로 paying을 -> paid로 바꾼다.
① 동사 mean은 목적어 자리에 ing를 쓸 수 있다.
② that은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선행사 issues가 복수이므로 interest or concern의 수일치도 맞다
④ let 목적어 보어 5형식으로 보어자리에 동사원형 pass 잘 쓰여 있고 by가 부사이므로 대명사는 pass 와 by 사이에 쓴다.
 - (문맥어휘) - 난이도 중
전체 글의 문맥은 Listening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글의 중반쯤에 However부터 예외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그 예시로 존슈타인백을 예로 든다. 그는 훌륭한 리스너였지만 동시에 미움도 샀다고 했으므로 마지막에 "The result of his listening didn't make him unpopular"에서 앞에 didn't와 unpopular를 쓰면 2중 부정으로 긍정이 되므로 유명해졌다는 문맥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unpopular를 -> popular로 바꾸어야 한다.
 - (주제) 난이도 - 하
4번째 줄의 The way to learn to stop worrying is by first~ 부분에서 알 수 있듯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걱정하는 법을 멈추는 방법이다.
보기 ④번의 "How do we cope with worrying?(어떻게 걱정하는 것에 대처해야하는가?)가 적절하다
 - (내용일치) 난이도 - 하
6번째 줄 "Macaulay students also receive~" 문장을 해석해보면 "Macaulay 학생들은 또한 노트북과 7,500달러의 기회비용을 지급받았다"라고 되어있다. 보기 ②번에 "MHC에서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구입 비용과 교외활동 비용을 합쳐려 \$7,500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다르다.
 - (어휘) 난이도 - 하
malefactor(악인, 나쁜사람, 범죄자) = ① culprit(범법자, 범죄자, 나쁜사람)
 - (어휘) 난이도 - 중
through thick and thin(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④ in good times and bad times
 - (문장삽입) 난이도 - 하
주어진 문장에선 some과 others로 비교하면서 "몇몇은 그들 고유의 악센트와 방언 표현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말했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자신들의 언어표현방식도 바뀐다는 것이다 ③번 뒤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똑같이 하진 않는다"라고 하므로 보기④에 some / others로 부연설명을 해주야 적절하다.
 - (내용일치) 난이도 - 하
보기 ②번은 "일시적 불면증은 오직 불충분한 수면 환경 때문에만 발생한다"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줄부터 transient insomnia에 대한 원인을 언급하면서 "by another disorder, changes in the sleep environment, by the timing of sleep, severe depression, or by

stress" 라고 하면서 다양한 원인을 언급하므로 ②번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8. (빈칸완성) 난이도 - 중

정부가 많은 돈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선생님의 수와 그런 선생님들을 교육시킬 기관이 충분치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빈칸 앞문장에선 "Everonn' s solution?" 이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언급해 주는데 빈칸 뒤에 "It offers everything from digitized school lessons~ " 뭔가 디지털화 된 방식으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보기 ③의 "to bridge the gap through virtual classrooms. (가상 수업교실을 통해서 격차를 줄이면서)"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19. (순서배열) 난이도 - 중

먼저 주어진 문장에서 biofeedback이란 기술이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문장은 biofeedback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줘야한다. (A)번엔 such a variable moves(그런 다양한 움직임들) 이라고 언급되므로 such 때문에 먼저 나올 수가 없다. (B)번에서 "Various parts of the body to measure such variables as ~ " 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는 (A)의 such a variable moves와 연결될 수 있다. (B) - (A) 순서로 언급된 보기는 ③번 밖에 없다.

20. (영작) 난이도 - 하

④ "~만큼 ~하지 않다 " 라고 할 때 not so 형/부 that S V를 써야 하지만 that을 써야 하는 자리에 as를 쓰고 있어서 틀렸다.

- ① ~을 잘 못하다 = be not good at 으로 맞게 쓰였다
- ②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으로 비교급 ~ than any other 단수명사로 맞게 쓰였다
- ③ 동명사 주어와 관계대명사를 활용한 문장으로 making을 동명사 주어로 써서 본동사 is로 맞게 쓰였고 you are speaking to가 앞에 person을 꾸미는 목적격관계사의 생략으로 맞게 쓰였다.

니다.

문법파트에서도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를 보여주었고 너무 지엽적인 세세한 문법사항까진 물어보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서의 중요 문법 포인트 위주로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었던 수험생 분들에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하신 모든 수험생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이 남아 있으므로 오늘 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다음 시험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총평

난이도 매우어려웠다. 다소어려웠다. 평이했다.
 다소쉬웠다. 매우쉬웠다.

총평

생활영어	2문제
어휘+논리	4문제
문법+영작	3문제
독해 내용일치	3문제
독해 주제/제목	2문제
독해 문장삽입	1문제
독해 글의순서	1문제
독해 글의 흐름 +문맥 어휘	2문제
독해 빈칸	2문제

작년 4월 / 하반기 추가채용에 비해서 다소 쉬웠습니다. 특히 독해에서 빈칸 문항이 줄었다는 점이고, 내용일치에서 지문의 길이는 길지만 답의 단서가 거의 앞부분에서 나온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독해의 난이도가 조금 내려간 것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문장삽입이나 글의 흐름 부분도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는 글의 구조와 단서를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수험생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목할 점은 (가)책형의 경우 11번의 문맥상에서 흐름과 어긋나는 어휘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점점 수능영어와 많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해가 무난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합격컷이 작년보다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에 어휘에서 변별력을 주려고 의도한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생활영어 부분은 해석은 되지만 보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휘 부분도 밑줄 친 부분의 어휘와 답이었던 어휘(native, culprit)는 전부 표제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짚을 수 있었겠지만 선택지의 어휘(ravenous, demagogue, dilettante)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됩니다.